

# 주택경기 우려에도 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 전국 올 44만 세대 입주·42만가구 분양...2년 연속 급증 정부 규제에 시장 위축 위기감...건설사 새 먹거리 찾기 분주

주택시장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중견건설사에서만 3만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분양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호반·우미·반도·태영건설 등 5개 중견건설사들은 입대를 제외하고 올해 전국에 3만172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이상 늘어난 수치다.

태영건설이 1만1141가구를 공급해 5개 건설사 중 분양물량이 가장 많고 중흥건설 7086가구, 호반건설 5530가구 우미건설 4142가구, 반도건설 3828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각종 규제 등의 여

파로 건설사들의 분양계획이 상당수 미뤄졌다며 아직까지 청약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가급적 빨리 물량을 털어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역시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공급물량이 예정된 데다 정부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어 활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주택경기 위축과 택지 확보 난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 등 사업 다각화로 활로를 모색하는 중견건설사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요 중견건설사들의 주택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이를 대체

하기 위한 신사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주택사업 노후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다.

구준히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건설과 지역주택조합에 주력하고 있는 서희건설 등도 도시재생 사업 진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도시정비사업에 시선을 돌린 중흥건설과 진흥기업 등도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광주에 거점을 둔 해림건설 등도 속속 수주 낭보를 울리고 있다.

호반건설과 반도건설 등은 최근 도시정비분야 경력사원을 채용하며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미건설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춰 부동산 개발 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을 주로 담당했던

개발사업본부 내 사업팀을 재편하고 인력을 보강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에 따라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 그동안 쌓아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도시재생 분야가 중견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409개 사업장에서 총 41만7786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분양 실적인 26만4907가구보다 57.7%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2013~2017년) 평균 분양실적(30만7774가구)에 비해서도 36%나 많다. 입주물량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43만 9611가구로 지난해(38만3820가구)보다 14.5%(5만5791가구) 많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2521.74 (+18.01) | 금리 (국고채 3년) 2.23% (0.00) |
| ↑ 코스닥 901.23 (+9.62)   | 환율 (USD) 1062.70원 (0.00) |

## 광주국세청 “부가세 납부 25일까지”

### 호남권 63만명 대상...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는 ‘페이코’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향)에 따르면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해 세심신고를 적극 뒷받침 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일반과세자는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 한 해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광주, 전남·북 이번 신고 대상자는 모두 63만명으로 법인과세자 8만 1000명, 일반과세자 33만9000명, 간이과세자 21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59만 9000명)보다 3만1000명이 증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시스템을 개설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제출 수 있는 미리제출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엔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했으며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한 33개 항목의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광주, 전남·북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제공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제출 수 있도록 제출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연말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자 1만 6000명에게는 모든 신고항목을 채워준 모두 제출 신고서를 발송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제출 수 있는 미리제출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20억 출연 ▲정년퇴직 예정자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노사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종업원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4만9667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61.06%로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1차 잠정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추가된 2차안을 잠정합의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위해 마케팅 총력”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 현장토론회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지사장 강진우)는 16일 호남권 농협하나로마트 담당자 160여명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2018년 호남권 하나로마트 현장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서 이들은 농기업제

품 및 농협가공제품 판매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조합원 편의증진을 위한 혼수용품, 찾아가는 하나로장터 운영 활성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등에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농협하나로유통

김성광 대표이사는 목포유통센터, 하나로클럽 남양점, 호남지사, 광주유통센터 등 광주·전남권 판매장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특히, 호남지사를 방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농기업 생산제품 판매확대 및 농업까지 헌법 반영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강진우 지사장은 “현장토론회를 통해 더욱 소통과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호남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중企 81% “4차 산업혁명 준비 부족”

### 광주·전남 199곳 설문...“네트워크 강화·지원확대 필요”

광주·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지역의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기현)는 10~11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199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 80.9%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응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21.1%)과 ‘전문인력 및 인재부족’(21.1%), ‘과도한 규제 및 법적 인프라 유연성 부족’(19.6%),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시스템’(16.1%), ‘수요창출(시장)의 불확실성’(8.0%) 순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72.4%), ‘사물

인터넷’(25.6%), ‘로봇’(16.1%), ‘빅데이터’(12.6%) 순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는다’(6.0%),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62.3%), ‘영향이 별로 없다’(29.2%), ‘전혀 영향이 없다’(2.5%) 등으로 대답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수단(중복 응답 가능)은 ‘전문인력 확보’(26.7%), ‘신사업 및 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26.7%), ‘전담조직 신설’(17.3%), ‘스마트 공장 도입’(17.3%) 순으로 답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때 우선순위는 ‘네트

워크 활동강화’(45.7%), ‘기업 자체 혁신 활동 강화’(32.2%) 등을 꼽았다.

4차 산업 관련 자치단체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 협력 지원 강화’(32.2%), ‘기술창업, 벤처 액셀러레이터, 지식서비스 지원 기능 강화’(30.2%) 등을 들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보고서 통해 “향후 광주·전남지역의 대응과제로 4차 산업혁명 역량의 상호 보완과 재정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017-2018  
신양파크호텔

# 겨울이야기

2018. 1. 1 ~ 3. 31

**객실패키지 | 2017. 12. 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